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영웅들의 귀환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한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대표팀 선수단 본단이 28일 오후 인천공항에 태극기를 앞세우고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굿바이 광저우, 4년뒤 인천서 만납시다

한국 金 76·銀 65·銅 91 원정대회 최고 성적… 4회 연속 종합 2위 달성

역대 원정 아시안게임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린 태극전사들이 마지막날까지 투혼을 발휘하며 열전 16일간의 스포츠 축전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국은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 최종일인 27일 남자 마라톤에서 8년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르며 원정 대회 역대 최고 성적 경신을 자축했다.

'포스트 이봉주'의 선두 두자 지영준(29·코오롱)은 광저우 대학성 철인3종 경기장 주변 일대를 도는 남자 마라톤 42.195㎞ 풀코스에서 2시간11분11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위는 기타오카 유키히로(2시간12분46초·일본)가 차지했으며 지난 대회 우승자인 케냐 출신 무바라크 하산 샤미(카타르·2시간12분53초)는 3위로 밀렸다.

1990년 베이징 대회부터 2002년 부산 대회까지 4회 연속 우승했던 한국은 8년 만에 마라톤 금메달을 되찾으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이번 대회 최후의 결승전이 벌어진 여자 배구는 중국에 2-3으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 여자는 1,2세트를 따내 완승을 거두는 듯 했지만 3,4세트를 내줘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마지막 5세트에서는 14-12까지 앞서다가 실수를 연발하면서 내리 4점을 내줘 눈물을 삼키고 말았다.

앞서 오전에 열린 세팍타크로 남자 더블 이벤트 결승에서는 미얀마에 세트스코어 0-2로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지막 날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한 한국은 메달 합계 금메달 76개, 은메달 65개, 동메달 91개를 획득해 역대 원정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올리며 4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했다.

한국이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최다 금메달을 딴 것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때 96개이지만 원정 대회에서는 1998년 방콕대회 때 기록한 65개가 종전 최다였다.

또한 금·은·동메달을 합해 232개를 수확한 한국은 2006년 도하대회 때 세웠던 원정 최다 메달 193개도 가볍게 경신했다.

주최국 중국은 역대 최고 성적인 금메달 199개, 은메달 119개, 동메달 98개를 차지해 1982년 뉴델리 대회부터 8회 연속 종합 1위를 이룩했다.

2위 탈환을 다짐했던 일본은 금메달 48개, 은메달 74개, 동메달 94개로 4회 연속 3위에 그쳤고 10위 진입을 노렸던 북한(금6, 은10, 동20개)은 체조가 출전금지 당하면서 전력에 차질을 빚어 종합 12위에 머물고 말았다.

이날 저녁 9시 광저우를 가로지르는 주장(珠江) 하이신사(海心沙)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4년 뒤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인천이 바통을 넘겨 받으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연합뉴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별 메달 현황

최종순위		금	은	동
1위	중국	199	119	98
2	대한민국	76	65	91
3	일본	48	74	94
4	이란	20	14	25
5	카자흐스탄	18	23	38
6	인도	14	17	33
7	대만	13	16	38
8	우즈베키스탄	11	22	23
9	태국	11	9	32
10	말레이시아	9	18	14

연합뉴스

■ 마라톤 지영준 피날레 금

부상·소속팀 내분 딛고 한국 마라톤 희망 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지영준(29·코오롱·사진)은 일찌감치 '포스트 이봉주'로 주목받아 온 한국 마라톤의 기대주다.

고교 시절부터 5000m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대학, 실업팀을 거치며 체계적으로 마라톤을 배운 지영준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춰 '한국 마라톤의 대부' 고(故) 정봉수 코오롱 감독이 생전에 마지막 노력을 쏟아부었던 선수다.

1999년 고교 최대어로 코오롱에 입단한 지영준은 풀코스 데뷔전이던 2001년 춘천마라톤에서 2시간15분대로 우승해 가능성을 입증하더니 1년 만에 2시간8분대로 기록을 줄였고, 2003년 서울국제마라톤에서는 2시간8분43초로 1위에 불과 1초 뒤진 준우승을 차지하며 차세대 기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영준은 2005년 초 갑작스런 부상으로 출전하기로 했던 모든 레이스를 접어야 했고, 코오롱 마라톤팀이 내분을 겪는 바람에 동료와 함께 한때 숙소를 이탈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2시간19분35초의 저조한 기록으로 7위에 그치고 말았다.

또 경찰대학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코오롱에 복귀하지 않고 독자 훈련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소속팀과 갈등도 재연됐다.

코오롱과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 지영준은 올해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9분31초를 찍고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건재한 실력을 확인했다.

결국 지영준은 기세를 몰아 27일 벌어진 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역주를 펼친 끝에 1위로 골인했다. /연합뉴스

육상 2000만원·수영 1000만원…

'값진 銀' 일군 남자농구 2억 격려

■ AG 금 포상금 어떻게?

27일 막을 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한국 선수단 가운데서는 돈방석에 올라앉은 선수들이 많다. 순수하게 기량을 가리는 아마추어 종합대회지만 협회마다 금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주며 격려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금메달이라도 종목에 따라 포상금이 차이가 나고 또 개인이냐, 단체냐에 따라서 액수에 격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육상은 금메달 2000만원, 은메달 1000만원, 동메달 5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수영은 이보다 적은 금메달 1000만원, 은메달 200만원, 동메달 100만원이다. 수영 3관왕에 오른 박태환(21·단국대)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 포상금 3600만원을 받는다. 또 후원사인 SK에서도 박태환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한 사격은 금메달에 1000만원, 은메달 200만원, 동메달 100만원을 책정해놨다. 다관왕이 많은 사격은 그러나 금메달 2개 이상인 경우 기준 금액의 20%만 더해준다. 예를 들어 3관왕에 오른 한진섭(29·충남체육회)은 첫 금메달로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개 금메달은 200만원씩 포상금이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포상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궁도 포상금에서는 그동안 남부럽지 않게 지내왔다. 양궁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에게 10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줬고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대표팀에도 2억8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4관왕 황선옥(22·평택시청)을 배출한 볼링 역시 아직 정확한 포상금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액 7000만원 규모에서 선수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금메달 7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 황선옥은 28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단체 종목 가운데서는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가 포상금 2억원을 받는다. 또 결승에서 비록 중국에 졌지만 2006년 도하 대회 노메달의 수모를 씻은 남자농구도 2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 태극전사들의 말·말·말…

박태환 시련이 있었기에 3관왕 7개메달 가능

정다래 올림픽 계획 묻자 "좀 쉬고 … 쉽시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수많은 메달만큼이나 많은 이들의 인터뷰가 쏟아져나왔다. 한국에 역대 원정 최다 금메달을 안긴 태극전사들은 저마다 느낀 영광과 아쉬움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감동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2주 동안 때로는 재치있게 이번 대회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내고, 때로는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던 말을 모았다.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수영 3관왕 박태환** = 수영 경기를 모두 마치고 20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태환은 2004 아테네올림픽과 지난해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겪은 시련 덕에 다시 강해져 2006년 도하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하고 7개의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좀 쉬고…쉽시다!" 여자 평영 200m 금메달리스트 정다래**= 수영 경기를 모두 마치고 20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언행이 어우러져 '4차원 소녀'로 화제를 모은 정다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계획을 질문받자 "2년 후 올림픽은 아직 아시안게임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서 아직 잘 모르겠다"더니 "좀 쉬고…쉽시다!"라고 말해 웃음폭탄을 터뜨렸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선물 받았다" 남자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 박주영** = 25일 이란과 3~4위 결정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동메달을 따내고 나서.

전날 아랍에미리트와 준결승에서 연장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해 패하고 나서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박주영은 "처음에는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15년 이상 축구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어린 후배들이 가르쳐줬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대회가 중국에서 열린 게 가장 아쉽다" 남자 농구 대표팀 유재학 감독** = 26일 열린 결승전에서 중국에 71-77로 아쉽게 져 은메달에 머물고 나서.

경기 내내 미묘하게 중국에 유리한 판정이 나와 고생한 유 감독은 '가장 아쉬운 점'을 질문받자 농담을 섞어 "심판 판정이 불리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감이 있다. 그 외의 결과에는 만족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태극기는 언제나 내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 한국 핸드볼의 '전설' 윤경신**= 26일 열린 남자 핸드볼 결승전에서 이란을 32-28로 물리쳐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고 나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부터 6개 대회 연속으로 태극 마크를 달고 뛴 윤경신은 "이젠 태릉선수촌이 내 집 같다. 태극기는 언제나 내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지재형, 사랑합니다" 여자 멀리뛰기 금메달리스트 정순옥** = 23일 여자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나서.

정순옥은 금메달이 확정되자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더니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한 높이뛰기 선수 지재형(문경시청)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해 폭소를 자아냈다. /연합뉴스